

勞 動 經 濟 論 集
 第43卷 第3號, 2020.9. pp.123~148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청년층 지역이동과 임금수준 효과*

조 동 훈**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다양한 지역정보와 임금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대졸자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생애주기(고등학교-대학교-취업)에 따른 지역이동 관련 ‘임금수준’ 연구를 최초로 분석하였다. 유형별 노동시장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대졸자 청년층은 거주했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높은 임금을 노동시장에서 보상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노동시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수도권으로의 인재유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주제어: 지역이동, 임금변동, 청년층 노동시장

I. 서 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노동력은 핵심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청년층 고용문제는 많은 OECD 국가의 당면과제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논문 접수일: 2020년 8월 24일, 논문 수정일: 2020년 9월 21일, 논문 게재확정일: 2020년 9월 25일

* 본 논문은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FR-202004-008)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이며,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를 이용한 심층연구”에 발표된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음.

**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hooncho@hallym.ac.kr)

들 사이에서 청년세대의 노동시장에서의 기술 및 재능 기여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등에서도 청년층의 고용시장 진입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청년층 노동력에 관한 관심은 증대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에서 다양한 청년층 일자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OECD에서는 1982년도부터 LEED(Local Economic and Economic Development)를 중심으로 지역노동시장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LEED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맞춤형(locally targeted) 혹은 지역이 주도하는(locally initiatives)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예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지역경제 성장과 발전에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역노동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구체적인 정책들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각 국가의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수립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3년 OECD “Local Strategies for Youth Employment”에서는 지역노동시장과 청년층 고용문제를 유기적으로 종합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국가 전체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다양한 양상들이 지역노동시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단위 청년층 노동력에 관한 연구가 절실하다. 특히 지역별로 상이한 산업구조와 인구구조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의 경우 청년층의 인구 혹은 노동이동이 빈번하고 이로 인한 일자리 구조가 지역마다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포함한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지역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층 고용문제가 지역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경제침체로 인한 많은 문제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적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국내 노동시장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대도시로의 고학력 청년층이 대거 이동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권상철, 2005). 지역별 청년고용 여건하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 사정을 보이는 지역의 경우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초래하고 이는 지역 내 우수인재 부족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는 지역 간 경제성장 격차와 더불어 소득격차 그리고 이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은 전반적인 사회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층의 인구이동 동학을 통해 인재유출 문제, 남아 있는 인재에 대한 정책 처방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단위에서 청년층 인구이동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인재유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청년층 인재유출을 대학진학 단계부터 폭넓게 파악하기도 하는데 이는 수도권 대학으로의 진학과 졸업 이후 수도권에 정착하는 비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소재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문제는 단순히 인재유출의 관점을 벗어나 지역 내 노동시장 수급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지역대학의 역할이 지역 내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재유출에 따른 필요인력의 부족 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인구(지역)이동과 노동시장에 관한 국내 연구는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첫째는, 청년층의 인구 혹은 지역이동 결정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들이다(류장수, 2015). 청년층의 인구이동을 인재 유출입이라는 관점에서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대학교육 이후 청년층의 지역이동과 이로 인해 노동시장 성과(임금수준) 변화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존재한다(최광성·강동우·최충, 2018). 이들 연구 주제는 청년층이 정규교육 졸업 이후 최초 직장에서부터 그 이후 지역이동을 포함한 직장 이직을 통한 임금변화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청년층이 정규교육(특히 대학교)을 통해 지역에서 경험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그 이후 최초 직장을 구하고 이로 인한 지역이동과 노동시장 성과와의 종합적 연결고리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이동경로조사(GOMS) 최신자료를 통해 대졸자 청년층이 최초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한 지역이동 혹은 인구이동에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그들이 생활했던 지역(고등학교 소재지)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청년층은 최대 2번의 지역이동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지역 대학에 진입한 이후 다시 자신이 과거에 거주했던 지역(비수도권) 혹은 새로운 지역(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인구이동 또는 노동이동에 따른 임금으로 측정되는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인구이동을 야기하는 요인적 측면에 관한 연구가 기존의 주된 연구의 흐름이었다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구이동으로 야기된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지역단위에서의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다양한 지역정보와 임금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대졸자이동경로조사(GOMS) 2016년도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 지역이동으로 인한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II장에서는 기존 연구 문헌을 통해서 청년층이 경험하게 되는 지역이동과 결정요인 그리고 임금변화 관련 실증분석 결과들을 고찰해 보 고자 한다. 제III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추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과 기초통계량을 기 술하고자 한다. 제IV장에서는 청년층 지역이동으로 인한 임금변동의 크기를 다양한 시 각에서 추정해 보았다. 그리고 제V장에서는 도출된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 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II. 기존문헌 고찰

영미권에서 사용하는 이동 혹은 이주(migration)이란 용어가 국내에서 인구이동 혹은 거주 이동 등의 용어로 번역되었다. 이는 이주라는 행위 주체를 강조하면 ‘인구이동’이라 할 수 있고, 이동의 물리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면 노동이동 혹은 ‘지역이동’이라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인구이동이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인구이동이란 거주를 목적으로 인구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 옮겨가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러한 이동의 원인에는 흡인 요인과 배출 요인이 작용하는데, 여기에는 경제·문화·가족·교육·정치적 여건 등이 반영된다. 흡인 요인(pull factor)이란 인구를 지역 내부로 끌어들이는 요 인으로, 지역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상업·교통의 발달, 교육·의료·문화 시설, 쾌적한 환경, 풍부한 취업 기회, 높은 임금 등이 흡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배출 요인(push factor)이란 인구를 외부 지역으로 내보내는 요인으로, 현재 사는 지역에 대한 불만족 의 정도를 의미한다. 빈곤, 저임금, 편의 시설 부족, 일자리 부족, 환경오염 등이 배출 요인으로 작용한다(권상철, 2005).

인구이동은 노동력의 지리적 이동을 포괄하지만, 개념적 구분이 필요하기도 하다. 가령, 서울 거주자가 서울에 있는 직장 변동 없이 주거지만 경기도로 이동할 때에도 인구 이동 통계에는 포착되며 우리는 이를 인구유출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직장이동은 하지 않 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이동이 노동력의 지리적 이동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인 구이동은 더욱 다양한 목적에서 이루어지지만, 노동력의 지리적 이동은 취업 등 경제활동 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노동력의 지리적 이동도 보다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이동하지만 보다 나은 거주 환경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인구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양자의 개념적 차이를 구분하기보다는 이 글의 목적이 일반적인 인구이동보다는 청년층들이 일자리를 찾아 혹은 더욱 나은 고용환경을 찾아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노동력의 지리적 이동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학에서 주로 고려하는 인구이동 모형은 노동이동을 고려하는 내생적 인적자본 모형이다. 전통적으로 노동이동을 설명하는 경제학 이론으로 신고전학과 이론이 있다. 신고전학파는 이주노동의 공급을 비용과 편익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있다. 핵심개념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투자로 사람들은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투자하듯이 이주에 투자할 결정을 내리게 된다(Becker, 1964). 이동에 따른 편익의 현재가치가 금전적 비용과 비금전적 비용을 초과하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바꾸거나 이동을 하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동의 순편익(net benefit), 즉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의 현재가치의 크기가 이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이동에 따른 순익의 현재가치는 새로운 직업으로부터 얻는 효용이 클수록, 이전의 직업으로부터 얻는 효용이 적을수록, 이주에 따른 비용이 적을수록, 새로운 직업이나 새로운 지역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길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Greenwood, 1997).¹⁾ 즉 지역적 노동이동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으로부터 부유한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어떠한 사람이 더 쉽게 이주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첫째, 두 지역 간 이동을 통해 더 많은 임금을 획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전문기술력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동에 따른 임금차가 비숙련 근로자보다 크기 때문에 같은 비용을 들여 이주한다고 가정하면 전문기술력을 가진 근로자가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두 지역 간 임금차가 같은 근로자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근로자가 나이가 많은 근로자보다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같은 이주비용을 들인다고 할지라도 더 오랫동안 노동이 가능한 젊은 이주자의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청년층 관련 지역 간 인구이동과 노동시장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패턴과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1) 지역 간 이동을 설명하는 전통적 이론에는 HT(Harris & Todaro, 1970) 모형, 중력이론(Gravity Theory) 그리고 어메니티 효과(Amenity Effects) 등이 대표적이다. 언급된 모형들은 결국 지역 간 이동으로 기대되는(혹은 현실화된) 편익(benefits)과 비용(costs) 분석의 틀에서 설명되어진다.

연구이다.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이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연구결과물들이 있으며 국내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는 강동우(2016)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일반적인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김현아(2008)를 참조하면 된다. 전체 인구이동 가운데 이찬영·이흥구(2016)의 연구에서는 25-29세 청년층의 지역 간(수도권과 비수도권 혹은 비수도권 내에서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임금, 취업률 등의 노동시장 요인과 전세가격 등과 같은 주거비용 등을 인구이동의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용 압박이 수도권의 고임금, 고취업률의 노동시장 견인 요인을 압박하여,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재유출이 감소할 가능성을 도출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재 유출입의 관점에서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 과정(school to work) 동학에 초점을 맞춘 류장수(2015) 연구는 흥미롭다. 고졸 이후 대학교 진학(1차 인재유출) 그리고 대학졸업 이후 최초 직장진입(2차 인재유출)과 관련된 인구이동 패턴과 인구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 고교졸업자의 경우 가정 배경과 질적 우수성이 좋을수록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대졸 이후 수도권 직장으로의 이동에서도 발견되었으며, 특히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직장을 구한 청년층의 임금수준이 체류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류장수의 연구는(2015) 고졸 이후 대학진학 그리고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가지 유형의 청년층 인구이동을 분석한 점에서 본 연구와 다소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유형의 복합적인 인구이동(고졸과 대졸 그리고 직장 관련 지역 관련 총 8가지 유형)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인구이동이 노동시장 성과인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인재유출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에서 인재유출이 지역경제나 지역노동시장, 그리고 이동자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연구들이 있다. 김기승 외(2012)는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인재의 유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소비효과, 생산효과, 외부효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이상호(2010)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 간 이동의 결과 전체적으로 약 6~7% 정도의 임금 편익이 나타났지만 학력수준 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고학력자의 경우에는 원거리 이동으로 인해 약 7% 가까운 임금이 증가한 데 반해 저학력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임금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취약하고 정보 획득이 어려운 집단의 경우 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임금증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학력자들의 이

동률이 낮은 이유는 거꾸로 보았을 때 이동을 통한 편익이 없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최근 최광성·강동우·최충(2018)의 연구에서는 대졸자가 첫 직장에서 두 번째 직장으로 이행하는 경우 지역이동(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이중차분 매칭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지역(직장)이동의 경우 임금변화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 청년층이 최초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한 지역이동 혹은 인구이동에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자신들이 생활했던 (고등학교 시절)지역과 (다른 지역)대학에 진학해서 생활했던 경험 등을 토대로, 졸업 이후 최초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의사결정의 행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런 인구이동 또는 노동이동에 따른 임금으로 측정되는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에 주목하여 지역노동시장 관점에서 인재 유출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²⁾

III.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대졸자 청년층의 이동과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하는 대졸자이동경로조사(GOMS) 최근 자료인 2017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졸자이동경로조사의 경우 2006년도 패널조사로 시작하였으나 2012년도 이후에는 횡단면 조사로 변경되었다. GOMS 자료는 2-3년제와 4년제 그리고 교육대학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해서 약 4% 수준인 매년 약 1만 8천 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고 있다. 2017년도 자료에는 2016년도 2월 혹은 2015년도 8월에 졸업한 표본 18,19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 시점은 2017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전체 표본 가운데 2-3년제 대학과 교육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 졸업자 표본 13,553명을 분석표본 대상에 포함하였다.³⁾

2) 최근 고용조사 브리프(2020년 봄호)에서는 2007-2018년도 청년패널(Youth Panel) 자료를 통해서 생애주기(고등학교-대학교-취업)에 따른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의 기초통계량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3) 대졸자이동경로조사(GOMS)는 대학원 진학자를 제외한 대졸자만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인적자본 형성의 '동질성'과 이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수준 결정의 이질성을 최대한 배제하

분석대상 표본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 시점 거주지 주소와 대학교 주소 그리고 첫 번째 직장의 주소를 모두 제공하는 응답자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첫 번째 직장의 월평균 임금수준과 기타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체 종사자 규모와 유형 그리고 근로자가 속한 산업에 대한 정보와 종사상 지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표본 가운데 대학 졸업 이후 최초 직장에서 임금근로자로 종사했던 9,715 표본을 최종유효 표본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표본을 대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당시의 거주지 정보와 대학소재지 정보 그리고 대학 졸업 이후 첫 직장 소재지 정보를 토대로 총 8개 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여기서 편의상 수도권 지역은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전역을 포함하고 있다.

- ① 고등학교 수도권 / 대학교 수도권 / 첫 직장 수도권
- ② 고등학교 수도권 / 대학교 비수도권 / 첫 직장 수도권
- ③ 고등학교 수도권 / 대학교 수도권 / 첫 직장 비수도권
- ④ 고등학교 수도권 / 대학교 비수도권 / 첫 직장 비수도권
- ⑤ 고등학교 비수도권 / 대학교 수도권 / 첫 직장 수도권
- ⑥ 고등학교 비수도권 / 대학교 비수도권 / 첫 직장 수도권
- ⑦ 고등학교 비수도권 / 대학교 수도권 / 첫 직장 비수도권
- ⑧ 고등학교 비수도권 / 대학교 비수도권 / 첫 직장 비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지역과 대학교 졸업지역 간 이동분포를 아래 <표 1>에서 보여주고 있다.⁴⁾ 충청남북도와 세종시는 충청권, 전라남북도와 광주는 전라권, 경상남북도와 대구와 부산은 경상권으로 그리고 강원도와 제주도는 기타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수도권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전체 표본 6,782명 가운데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4,819명으로 전체 수도권 고졸자의 약 72%가 수도권 지역 소재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으로 충청권으로 진학한 비중이 15%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 위하여 분석표본에서 2-3년제 대학 졸업생을 제외하였다. 분석표본의 크기가 허락한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2-3년제 대졸자와의 비교 분석도 의미 있을 것이다.

4) 이동분포에서 보여주는 표본의 경우 임금을 포함한 다양한 결측치를 포함한 관계로 최종유효 분석대상 표본보다 다소 그 크기가 증가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표 1> 고등학교 졸업지역과 대학교 졸업지역 이동분포

		대학교 졸업지역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기타지역	전체
고등학교 졸업지역	수도권	4,879 (71.9%)	1,069 (15.7%)	205 (3%)	242 (3.5%)	387 (5.7%)	6,782
	충청권	335 (19.2%)	1,177 (67.6%)	96 (5.5%)	102 (5.8%)	30 (1.7%)	1,740
	전라권	336 (15.9%)	100 (4.7%)	1,566 (74.2%)	90 (4.2%)	17 (0.8%)	2,109
	경상권	656 (12.6%)	248 (4.7%)	89 (1.7%)	4,143 (79.9%)	44 (0.8%)	5,180
	기타지역	143 (20.3%)	71 (10.1%)	21 (3.0%)	60 (8.5%)	407 (57.9%)	702
	전체	6,349	2,665	1,977	4,637	885	잘못된 계산식

자료 : 대졸자이동경로조사(2017년도)

나머지 지역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 약 68%가 충청도 소재 대학에 진학했고 다음으로 수도권으로 약 20% 고졸자가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권과 경상권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졸업자 가운데 수도권으로 진학한 비율은 각각 15.9% 그리고 12.6%로 충청권에 비해선 수도권 진학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지역과 대학졸업 이후 첫 직장 소재지와의 분포를 아래 <표 2>에서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비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졸업 이후 수도권에 첫 직장을 구한 비중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충청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비중은 19.2%였는데 첫 직장을 수도권에 구한 경우는 32.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라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표본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데 수도권 지역에 첫 직장을 구한 비중은 25.0%로 수도권 대학진학 비중 15.9%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 고등학교 졸업지역과 첫 직장 지역 이동분포

		첫 직장 지역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기타지역	전체
고등학교 졸업지역	수도권	5,181 (88.2%)	288 (4.9%)	93 (1.5%)	178 (3.0%)	128 (2.1%)	5,868
	충청권	490 (32.8%)	872 (58.4%)	40 (2.6%)	58 (3.8%)	31 (2%)	1,491
	전라권	423 (25.0%)	101 (5.7%)	1,124 (63.9%)	82 (4.6%)	27 (1.5%)	1,757
	경상권	916 (20.9%)	214 (4.9%)	57 (1.3%)	3,126 (71.6%)	51 (1.1%)	4,364
	기타지역	215 (36.6%)	25 (4.2%)	10 (1.7%)	37 (6.3%)	300 (51.1%)	587
	전체	7,225	1,500	1,324	3,481	537	14,067

자료 : 대졸자이동경로조사(2017년도)

그리고 대학교 졸업지역과 대학졸업 이후 첫 직장 소재지와와의 분포를 아래 <표 3>에 서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두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첫 번째는 다른 지역보다 충청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첫 직장을 수도권에서 구한 비중이 47.6%로서 전라권 19.3% 그리고 경상권 20.9%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충청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비중이 다른 권역권보다 높은 패턴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대학을 졸업한 응답자의 경우 그 지역에 남아 있을 비중보다 수도권으로 이주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⁵⁾

구체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표본을 대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당시의 거주지 정보와 대학소재지 정보 그리고 대학 졸업 이후 첫 직장 소재지 정보

5) 최근 고용조사 브리프(2020년) 청년층 인구이동 관련 통계도 본 연구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조사 브리프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8년 종단면 조사인 청년패널(Youth Panel)을 분석하였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목적에는 대졸자이동경로조사가 더 적합해 보인다. 첫 번째는 청년층의 임금수준 변화를 지역을 고려해서 회귀분석을 시도할 경우, 청년패널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추정결과 값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하기 힘들다. 두 번째 이유로 역시 분석표본의 크기와 관련 있는데, 종단면 조사인 청년패널의 경우 시간효과를 고려한 모델을 추정하기에는 충분한 표본 확보에 문제가 있다.

〈표 3〉 대학교 졸업지역과 첫 직장 지역 이동분포

첫 직장 지역							
대학교 졸업지역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기타지역	전체
	수도권	4,924 (89.8%)	196 (3.5%)	96 (1.7%)	182 (3.3%)	83 (1.5%)	5,481
	충청권	1,098 (47.6%)	1,026 (44.5%)	35 (1.5%)	96 (4.1%)	50 (2.1%)	2,305
	전라권	324 (19.3%)	106 (6.3%)	1,140 (68.1%)	78 (4.6%)	27 (1.6%)	1,675
	경상권	576 (14.6%)	147 (3.7%)	50 (1.2%)	3,102 (78.8%)	57 (1.4%)	3,932
	기타지역	362 (48.2%)	32 (4.2%)	7 (0.9%)	30 (3.9%)	320 (42.6%)	751
	전체	7,284	1,507	1,328	3,488	537	14,144

자료 : 대졸자이동경로조사(2017년도)

를 토대로 총 8개 유형에 따른 다양한 기초통계량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유형별로 첫 직장에서의 월평균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를 비수도권에서 졸업하고 대학교육을 수도권에서 이수하고 첫 직장을 비수도권에서 구한 ‘유형 7’에 속한 그룹의 임금수준이 243만 원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등학교와 대학을 수도권에서 이수하고 첫 직장을 비수도권에서 구한 ‘유형 3’에 속한 그룹의 임금수준이 236만 원, 그리고 고등학교를 비수도권에서 졸업하고 대학교육을 수도권에서 이수하고 첫 직장을 수도권에서 구한 ‘유형 5’에 속한 그룹의 임금수준이 212만 원 순이었다. 나머지 유형에 속한 청년층의 첫 직장 임금수준은 200만 원 혹은 그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형별 표본의 크기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첫 직장을 비수도권에서 구한 ‘유형 8’의 비중이 분석표본 대상 9,715명 가운데 가장 높은 3,838명으로 약 40%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첫 직장을 수도권에서 구한 ‘유형 1’의 표본이 2,529명으로 약 26%를 차지하였다. 고등학교부터 대학 그리고 첫 직장에 이르기까지 권역별 수준에서 한 번의 이동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층 비중이 66%에 이르고 있으며 나머지 34%에 해당하는 청년층은 대학교육 혹은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한 번 이상의 이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유형별 임금수준

(단위 : 만 원)

	월임금	표본 크기
유형 1	202.9 (86.6)	2,529
유형 2	185.1 (67.0)	970
유형 3	236.5 (98.7)	223
유형 4	188.6 (84.8)	315
유형 5	212.0 (99.5)	731
유형 6	200.1 (70.7)	878
유형 7	243.8 (101.9)	231
유형 8	186.7 (74.1)	3,838
전 체(평균)	196.4 (81.5)	9,715

주 : ()의 값은 표준편차.

자료 : 대졸자이동경로조사(2017년도)

임금을 결정하는 개인특성 변수분포를 고등학교/대학교/첫 직장 소재지를 통해서 8가지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특성 변수에는 응답자의 현시점 연령과 여성 비중 그리고 대학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4.5 단위로 표준화한 대학 시절 획득했던 총평점(GPA)과 해외 어학연수 경험 여부 그리고 학생들이 취득했던 전공을 7개 대분류로 설정하였다. 이에는 인문, 사회과학, 교육, 공학, 자연, 의학 그리고 예체능 계열로 구분하였다.

우선 연령에서는 그룹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성 비중은 그룹 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유형 4’에 속한 그룹의 여성 비중은 24%로 가장 낮게 낮았는데 고등학교를 수도권에서 나온 여학생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육이나 직장을 구한 비중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 대학교육 혹은 첫 직장을 수도권에서 구한 여성이 속한 ‘유형 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어학연수 경험과 전공 분포에 있어서 현저하게 관측되는 유형별 패턴은 존재하

<표 5> 유형별 개인특성 변수

(단위 : %)

산업분포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연령	26.8	26.3	26.9	27.0	26.9	26.4	27.0	26.6
여성 비중	51	40	29	24	44	40	36	43
총 평점(GPA)	3.6	3.6	3.6	3.6	3.6	3.6	3.6	3.6
어학연수 경험	14.7	11.9	15.2	10.7	14.6	13.9	16.8	12.9
전공 분류								
인문	16.4	11.8	10.3	7.3	13.9	10.7	13.8	12.2
사회과학	24.0	21.2	21.9	10.4	21.7	15.6	19.4	20.3
교육	5.3	5.8	3.5	7.3	4.6	3.0	3.9	7.2
공학	26.8	26.1	43.5	36.8	29.0	34.5	41.5	31.2
자연	14.0	13.8	13.4	22.8	14.9	15.8	13.8	15.4
의약	2.4	9.3	2.2	7.3	3.9	8.6	2.6	6.1
예체능	10.8	11.6	4.9	7.9	11.7	11.6	4.7	7.3

자료 : 대졸자이동경로조사(2017년도)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대적으로 첫 직장 월급 수준이 높은 ‘유형 7’과 ‘유형 3’에 속한 학생들의 공학 전공 분포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속한 ‘유형 5’에서는 이런 패턴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사업체 종사자 규모와 유형 그리고 산업별 임금수준 분포를 유형별로 비교한 기초통계량을 <부표 1>-<부표 3>에 제시하고자 한다. 임금결정이 사업체 단위보다는 기업체 단위로 결정되는 국내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체 규모 정보를 임금결정 요인의 중요한 변수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첫 직장 기업체 규모에 대한 결측치가 상당히 존재하여 대신 사업체 종사자 규모를 대리 변수로 사용하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사업체 종사자 규모와 유형 그리고 근로자가 속한 산업분포를 고등학교/대학교/첫 직장 소재지를 통해서 정의한 8가지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표 1>에서 유형별로 사업체 규모 분포가 상이함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첫

직장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유형 7’에 속한 응답자의 사업체 규모 분포의 경우 1,000명 이상 대기업 종사자 비율이 20.7%로 전체 표본 13.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음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유형 3’에 속한 응답자의 경우 1,000명 이상 대기업 종사자 비율은 무려 38%를 넘어서고 있다. 세 번째로 임금수준이 높은 ‘유형 5’에 속한 근로자가 1,000명 이상 대기업에 속한 비중도 25%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 그룹들을 제외한 다른 그룹들의 경우 전체 표본의 패턴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유형 2’에 속한 종사자의 경우 1,000인 이상 대기업 종사 비중은 7.4%로 가장 낮은 반면에 5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은 무려 60%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사업체 규모별 종사 비중에 따른 유형별 임금격차는 매우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부표 2>에서 사업체 형태별로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유형별로 상이한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첫 직장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유형 7’에 속한 응답자의 경우 민간기업 종사 비중이 55.4%로 전체 평균 64.6%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출연기관 종사 비중은 15.1%로 전체 평균 5.7%보다 높게 더불어 정부기관 종사 비중도 14.2%로 전체 평균 7.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임금수준이 높은 ‘유형 3’에 속한 응답자의 경우 전체 표본의 유형별 분포와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로 임금수준이 높은 ‘유형 5’에 속한 근로자의 사업체 유형별 패턴은 ‘유형 7’에 속한 그룹과 다소 동일한 패턴이지만 민간회사 종사 비중은 더욱 낮고 정부기관 종사 비중은 다른 그룹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가 속한 직장의 산업별 분포를 <부표 3>에서 살펴보면 유형별로 상이한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 첫 직장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유형 7’에 속한 응답자의 경우 전체 표본 분포와 비교했을 경우,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18.5%인 데 반해 ‘유형 7’에 속한 그룹의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거의 30%에 이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공공행정 및 사회 비중 산업 종사자 비중은 15.5%로 전체 평균 6.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분석한 사업체 유형 분석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서비스업 종사 비중은 11.2%로 전체 평균 17.5%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임금수준이 높은 ‘유형 3’에 속한 응답자의 경우 전체 표본의 유형별 분포와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만 교육서비스업 종사 비중은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임금수준이 높은 ‘유형 5’에 속한 근로자의 사업체 유형별 패턴은 ‘유형 7’에 속한 그룹과 다소 동일한 패턴이지만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산업 종사자 비중이 무려 24.2%로 최고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IV. 실증분석 모형과 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고등학교/대학교와 첫 직장 지역 유형에 따른 임금효과를 실증분석(임금 방정식 추정)하고 이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회귀분석을 통해서 실증 분석하고자 하는 임금방정식(Mincerian Wage Equation) 모델은 아래와 같다.

$$Y_i = \beta_0 + \beta_1 Z_i + \beta_2 X_i + \epsilon_i \quad (1)$$

식 (1)에서 종속변수 Y_i 는 대학교육을 마치고 청년층이 첫 직장에서 획득한 임금수준에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사용한 설명변수 X_i 에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와 직장과 관련된 변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개인특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조사 시점에서의 연령, 성별 더미 변수와 대학교에서 수학한 전공 분류와 대학 시절 총 평점(GPA)과 어학연수 경험 여부 정보를 사용하였다.⁶⁾ 이런 개인특성변수와 더불어 근로자가 속한 직장과 관련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였다. 여기에는 근로자가 속한 직장의 유형을 민간회사, 외국계 회사, 정부출연기관 공사, 법인단체, 정부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연구기관으로 8개 분류하였는데 민간회사를 기준변수로 나머지 7개 직장 유형 더미 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근로자가 속한 직장의 산업분포를 12개 대분류로 구분하였으며 제조업을 기준변수로 나머지 11개 산업 더미 변수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혹은 근로형태로 비정규직 더미 변수를 사용하였고 세분화된 사업체 종사자 규모를 종사자 300인 이상 그룹을 더미 변수로 처리하였다.

여기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지역유형별 변수 Z_i 는 총 8개 유형의 더미 변수를 구축하였고, 일자리 특성에 관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지역유형별 임금격차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갔다.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보여주었던 ‘유형 7’, ‘유형 3’,

6) 대학 시절 학업성과의 지표인 총 평점(GPA) 변수는 임금방정식 추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어느 정도 통제한다고 할 수 있다. TOEIC 점수와 같은 개인의 어학 점수를 고려할 수 있으나 결측치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며 기존의 연구(김진영·최형재, 2009)에서 어학 점수는 취업 여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임금수준엔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표 6〉 유형별 노동시장 성과분석: 기본모델과 사업체 유형 포함

	모형 1		모형 2	
	coef.	s.e	coef.	s.e
나이	0.008**	(0.001)	0.003	(0.002)
여성	-0.147**	(0.011)	-0.153**	(0.011)
총 평점(GPA)	0.033**	(0.011)	0.065**	(0.011)
학생 전공 변수				
사회과학	0.102**	(0.016)	0.085**	(0.015)
교육	0.089**	(0.025)	0.240**	(0.028)
공학	0.147**	(0.016)	0.142**	(0.016)
자연	0.002	(0.018)	0.031	(0.017)
의약	0.298**	(0.021)	0.300**	(0.022)
예체능	-0.101**	(0.021)	-0.125**	(0.021)
어학연수 경험	0.075**	(0.013)	0.059**	(0.012)
유형 1	0.082**	(0.012)	0.074**	(0.011)
유형 2	0.005	(0.015)	-0.032*	(0.015)
유형 3	0.147**	(0.035)	0.174**	(0.033)
유형 4	-0.054*	(0.027)	0.019	(0.024)
유형 5	0.081**	(0.020)	0.109**	(0.018)
유형 6	0.076**	(0.015)	0.039**	(0.014)
유형 7	0.216**	(0.029)	0.218**	(0.028)
사업체 유형				
외국계 회사	No	No	0.132**	(0.020)
정부출연기관공사	No	No	-0.018	(0.015)
법인단체	No	No	-0.082**	(0.020)
정부기관	No	No	-0.101**	(0.013)
교육기관	No	No	-0.426**	(0.018)
연구기관	No	No	-0.381**	(0.049)
비정규직	No	No	No	No
사업체 규모	No	No	No	No
산업변수	No	No	No	No
R-sqs	0.1068		0.1832	
표본	9,715		9,715	

주 : ()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s)이며 이분산(heteroskedasticity)을 고려한 추정치임.

고등학교/대학교/첫 직장 기준그룹은 유형 8(고등학교 비수도권/대학교 비수도권/첫 직장 비수도권)임.

학생 기준 전공변수는 인문계열이며 사업체 유형 기준변수는 민간회사임.

* 통계적으로 5%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1%에서 유의함.

자료 : 대졸자이동경로조사(2017년도)

그리고 ‘유형 5’의 패턴이 다양한 개인특성변수와 일자리 특성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발견되는지를 측정하였다. 다양한 일자리 설명변수들의 포함 여부에 따라 총 6개 유형의 임금방정식을 추정하였다. 대학교육 이후 첫 직장에서의 주당근로시간에 대한 응답자의 회고적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일반적으로 노동경제학에서 추정하는 시간당 임금 대신 월평균 임금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먼저 ‘모형 1’에서는 임금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개인특성변수를 통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우리의 예측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추정계수 값들이 도출되었다.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대학 시절 학업성과는 임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문계열을 기준변수로 전공별로 상이한 임금수준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예상대로 의약과 공학전공 학생들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어학연수 경험은 그렇지 못한 응답자보다 월 임금수준이 약 8%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형별 임금격차는 개인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발견되고 있는데 기준그룹인 ‘유형 8’에 비해 ‘유형 7’에 속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약 22%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 3’의 경우는 15% 그리고 ‘유형 5’는 약 8%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사의 유형을 통제한 결과를 ‘모형 2’에서 보여주고 있다. 민간기업을 기준으로 외국계 회사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약 13%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유형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지역유형별 임금격차는 그 크기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회사의 유형과 더불어 사업체 규모와 근로형태(비정규직 여부)등을 통제한 결과를 ‘모형 3’과 ‘모형 4’에서 보여주고 있다. 종사자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다른 인적속성과 사업체 유형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중소기업 종사자 대비 임금수준이 약 8%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비정규직 종사자의 경우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무려 43%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와 근로형태 정보를 고려했을 때에도, 기초통계량에서 보여준 유형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기준그룹인 ‘유형 8’에 비해 ‘유형 7’(고등학교 비수도권, 대학교 수도권 그리고 첫 직장 비수도권)에 속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약 18%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 3’의 경우는 14% 그리고 ‘유형 5’는 약 9%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7〉 유형별 노동시장 성과분석: 사업체 규모와 근로형태 포함

	모형 3		모형 4	
	coef.	s.e	coef.	s.e
나이	0.007**	(0.001)	0.004	(0.002)
여성	-0.151**	(0.010)	-0.123**	(0.010)
총 평점(GPA)	0.041**	(0.011)	0.026**	(0.010)
학생 전공 변수				
사회과학	0.104**	(0.016)	0.066**	(0.014)
교육	0.080**	(0.023)	0.096**	(0.022)
공학	0.155**	(0.015)	0.094**	(0.014)
자연	0.005	(0.017)	0.006	(0.016)
의약	0.316**	(0.023)	0.261**	(0.021)
예체능	-0.108**	(0.019)	-0.090**	(0.020)
어학연수 경험	0.077**	(0.013)	0.060**	(0.011)
유형 1	0.092**	(0.011)	0.073**	(0.010)
유형 2	0.002	(0.016)	-0.008	(0.014)
유형 3	0.175**	(0.031)	0.140**	(0.030)
유형 4	-0.045	(0.026)	-0.009	(0.024)
유형 5	0.097**	(0.018)	0.093**	(0.017)
유형 6	0.079**	(0.017)	0.051**	(0.014)
유형 7	0.231**	(0.030)	0.176**	(0.026)
사업체 유형				
외국계 회사	No	No	No	No
정부출연기관공사	No	No	No	No
법인단체	No	No	No	No
정부기관	No	No	No	No
교육기관	No	No	No	No
연구기관	No	No	No	No
비정규직	No	No	-0.436**	(0.010)
사업체 규모(300인)	0.083**	(0.011)	No	No
산업변수	No	No	No	No
R-sqs	0.1014		0.2729	
표본	9,715		9,715	

주 : ()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s)이며 이분산(heteroskedasticity)을 고려한 추정치임.

고등학교/대학교/첫 직장 기준그룹은 유형8(고등학교 비수도권/대학교 비수도권/첫 직장 비수도권)임.

학생 기준 전공변수는 인문계열이며 사업체 유형 기준변수는 민간회사임.

* 통계적으로 5%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1%에서 유의함.

자료 : 대졸자이동경로조사(2017년도)

〈표 8〉 유형별 노동시장 성과분석: 산업변수 포함

	모형 5		모형 6	
	coef.	s.e	coef.	s.e
나이	0.002	(0.002)	0.002	(0.002)
여성	-0.100**	(0.010)	-0.102**	(0.010)
총 평점(GPA)	0.022*	(0.010)	0.021*	(0.010)
학생 전공 변수				
사회과학	0.333**	(0.014)	0.034**	(0.014)
교육	0.226**	(0.025)	0.232**	(0.025)
공학	0.027*	(0.014)	0.029*	(0.014)
자연	-0.003	(0.015)	-0.001	(0.015)
의약	0.253**	(0.024)	0.236**	(0.024)
예체능	-0.088**	(0.019)	-0.088**	(0.019)
어학연수 경험	0.040**	(0.011)	0.037**	(0.011)
유형 1	0.049**	(0.010)	0.045**	(0.010)
유형 2	-0.015	(0.013)	-0.015	(0.013)
유형 3	0.093**	(0.028)	0.087**	(0.028)
유형 4	0.007	(0.023)	0.010	(0.023)
유형 5	0.067**	(0.016)	0.068**	(0.016)
유형 6	0.026*	(0.013)	0.026*	(0.013)
유형 7	0.137**	(0.024)	0.134**	(0.024)
외국계 회사	No	No	0.117**	(0.019)
정부출연기관공사	No	No	0.052**	(0.016)
법인단체	No	No	0.027	(0.020)
정부기관	No	No	0.005	(0.024)
교육기관	No	No	-0.045	(0.026)
연구기관	No	No	-0.089*	(0.039)
비정규직	-0.328**	(0.011)	-0.327**	(0.011)
사업체규모	0.142**	(0.009)	0.144**	(0.009)
광고 및 건설	0.005	(0.020)	0.007	(0.020)
전기 운수 통신	-0.000	(0.017)	-0.019	(0.018)
도소매업	-0.117**	(0.015)	-0.121**	(0.015)
숙박 및 음식점업	-0.334**	(0.029)	-0.336**	(0.029)
금융 보험 임대	0.073**	(0.017)	0.061**	(0.018)
전문 과학서비스	-0.115**	(0.012)	-0.115**	(0.012)
교육서비스업	-0.392**	(0.016)	-0.356**	(0.022)
공공 사회복지	-0.234**	(0.014)	-0.239**	(0.025)
보건 및 사회복지	-0.185**	(0.019)	-0.192**	(0.021)
출판 영상 방송	-0.116**	(0.012)	-0.144**	(0.012)
기타서비스업	-0.261**	(0.020)	-0.267**	(0.012)
R-sqs	0.3523		0.3551	
표본	9,715		9,715	

주 : ()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s)이며 이분산(heteroskedasticity)을 고려한 추정치임.
 고등학교/대학교/첫 직장 기준그룹은 유형8(고등학교 비수도권/대학교 비수도권/첫 직장 비수도권)임.
 학생 기준 전공변수는 인문계열이며 사업체 유형 기준변수는 민간회사임.
 근로자가 속한 기준산업은 제조업임.

* 통계적으로 5%에서 유의함. ** 통계적으로 1%에서 유의함.

자료 : 대졸자이동경로조사(2017년도)

다만 근로형태 더미 변수(비정규직)를 통제했을 경우가 사업체 규모변수를 통제한 경우, ‘유형 7’의 임금격차가 다소 작아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임금결정에 있어서 사업체 규모보다는 근로형태가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회사의 유형과 더불어 사업체 규모와 근로형태 그리고 종사자가 속한 산업 등을 통제 한 결과를 ‘모델 5’와 ‘모델 6’에서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변수와 대기업 종사 더미 변수를 동시에 넣어주면 사업체 변수 추정계수 값이 상승하고 비정규직 추정계수는 다소 하락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종사자가 중소기업에 종사하여 이 두 가지 효과가 서로 상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변수의 경우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종사자가 다른 업종 종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관련된 관측되는 모든 변수를 통제할 경우, 유형별 임금격차의 크기는 상당히 감소했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몇 개 그룹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6>에서 기술한 유형별 임금수준의 경우 가장 낮은 임금수준을 보여준 ‘유형 8’을 비교했을 경우, ‘유형 7’의 임금수준은 약 30% 높았으며 ‘유형 3’은 27% 그리고 ‘유형 5’ 14% 순서였다. 이런 관측된 임금격차는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적속성과 일자리 속성을 모두 고려했을 경우, 각각 13%, 9%, 그리고 7% 수준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다양한 지역정보와 임금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대졸자이동경로조사(GOMS) 2016년도 최신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생애주기(고등학교-대학교-취업)에 따른 지역이동 관련 ‘임금수준’ 연구를 최초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 대상 표본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 시 주소와 대학교 주소 그리고 첫 번째 직장의 주소를 모두 제공하는 응답자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첫 번째 직장의 월평균 임금수준과 기타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체 종사자 규모와 유형 그리고 근로자가 속한 산업과 근로형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역이동과 임금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첫 직장을 모두 비수도권에서 구한 청년층인 ‘유형 8’의 임금수준이 186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고등학교를 비수도권에서 졸업

하고 대학교육을 수도권에서 이수하고 첫 직장을 비수도권에서 구한 ‘유형 7’에 속한 그룹의 임금수준이 243만 원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등학교와 대학을 수도권에서 이수하고 첫 직장을 비수도권에서 구한 ‘유형 3’에 속한 그룹의 임금수준이 236만 원, 그리고 고등학교를 비수도권에서 졸업하고 대학교육을 수도권에서 이수하고 첫 직장을 수도권에서 구한 ‘유형 5’에 속한 그룹의 임금수준이 212만 원 순이었다. 나머지 유형에 속한 청년층의 첫 직장 임금수준은 200만 원 혹은 그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형 8’을 기준으로 ‘유형 7’의 임금수준은 약 30% 높았으며 ‘유형 3’은 27% 그리고 ‘유형 5’ 14% 순서였다. 이런 관측된 임금격차는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적속성과 일자리 속성을 고려했을 경우, 각각 13%, 9%, 그리고 7% 수준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첫 직장을 비수도권에서 구한 ‘유형 8’의 비중이 분석표본 대상 9,715명 가운데 가장 높은 3,838명으로 약 40%를 차지하였으나, 반면에 임금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첫 직장을 수도권에서 구한 ‘유형 1’의 표본이 2,529명으로 약 26%를 차지하였고 이들의 임금수준은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결국, 고등학교부터 대학 그리고 첫 직장에 이르기까지 권역별 수준에서 한 번의 이동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층 비중이 66%에 이르고 있으며 나머지 34%에 해당하는 청년층은 대학교육 혹은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한 번 이상의 이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고등학교를 비수도권에서 졸업했지만, 자신이 살았던 지역을 떠나 수도권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다시 비수도권에서 첫 직장을 구한 이들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유형 7’의 비교집단인 ‘유형 5’, 즉 고등학교를 비수도권에서 졸업하고 수도권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수도권에서 직장을 구한 청년층 임금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서의 고급인력이 양질의 대학교육을 위해 자신이 거주했던 지역을 잠시 떠나 다시 임금수준이 높은 기업을 찾아 다시 자신이 거주했던 지역으로 회귀하는 표본이 이에 속한다. 이는 결국 지역 노동시장이 임금수준 혹은 근로환경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지역에서 우려하는 인재유출의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다음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유형인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수도권에서 졸업하고 첫 직장을 비수도권에서 구한 경우이다. 물론 이들의 경우, 지방 대도시 혹은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수도권 지역

출신의 고급인력도 지방에서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지방으로의 이주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조사 브리프에서도 기술한 것처럼 비수도권 대졸자의 수도권 이동은 상당히 존재하며 이는 전통적인 ‘인재유출’의 관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결국 지역노동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에서 임금을 포함한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지역인재 유출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고급인력이 지역으로 이주할 기회도 폭넓게 제공하리라 판단된다. 결국, 노동시장 진입 및 이동으로 인한 비수도권 출신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여 지역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지역 기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볼 수 있다(고용조사 브리프, 2020).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임금 외에 다른 편익들, 예를 들어 거주비용(주택)과 교통문제 그리고 문화시설 기반(amenities) 등의 정주여건 등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청년층의 최초 직장 이후 지역 이동을 동반한 직장이직(최초 직장과 현재 직장과의 이동 관계)과 임금변화와의 관계분석도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McCann, 2013; Yankow, 2003).

참고문헌

- 강동우.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고용』. 한국노동연구원, 2016.
- 권상철. 「우리나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권 6호 (2005): 571-584.
- 고용조사브리프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현황 및 특성』. 한국고용정보원, 2020.
- 김기승·정민수·윤용준. 『부산지역 청년층 인재유출 현상과 정책과제』. 한국은행부산본부, 2012.
- 김진영·최형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영어 실력의 프리미엄」, 『노동경제논집』32권 2호 (2009): 61-93.
- 김현아. 「지역간 인구이동의 실증분석」, 『응용경제』 10권 2호 (2008): 75-103.

- 류장수. 「지역 인재의 유출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지역사회연구』 23권 1호 (2015): 1-23.
- 이상호. 「지역간 이동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지역연구』 26권 1호 (2010): 45-70.
- 이찬영 · 이흥후.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경제연구』 34권 4호 (2016): 143-169.
- 최광성 · 강동우 · 최충, 2018 「지역이동이 대졸자의 임금 변화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 논집』 41권 2호 (2018): 61-88.
- Becker, G. *Human Capital*. Chicago University Press, 1964.
- Greenwood, M.J. “Internal migration in developed countries.” *Handbook of Population and Family Economics*. Elsevier, 1997.
- Harris J. R. and Todaro, M. P. (1970). “Migration, Unemployment and Development: A Two-Sector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60 (1) (1970): 126-142
- McCann, P. *Modern Urban and Regional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Yankow, J. J. “Migration job change, and wage growth: A new perspective on the pecuniary return to geographic migration.” *Journal of Regional Science* 49 (3) (2003): 483-516.

〈부표 1〉 유형별 사업체 규모 분포

(단위 : %)

종사자 규모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1~4명	6.1	8.2	2.3	6.4	5.4	4.4	3.5	10.1
5~9명	10.7	14.7	4.2	10.4	8.3	12.6	5.8	12.8
10~29명	16.9	24.8	13.6	15.2	14.5	20.7	17.5	22.2
30~49명	8.7	11.0	3.3	7.0	7.7	9.8	6.7	9.4
50~99명	10.4	11.7	5.6	11.1	9.6	12.3	9.0	13.8
100~299명	16.2	12.8	13.6	16.2	14.8	14.3	16.6	12.1
300~499명	6.2	4.5	8.4	8.4	7.0	6.6	6.7	4.6
500~999명	7.2	4.6	10.3	9.4	7.4	5.8	12.1	5.2
1000명 이상	17.2	7.4	38.2	15.5	24.9	13.1	20.7	9.5

자료 : 대졸자이동경로조사(2017년도)

〈부표 2〉 사업체 유형 분포

(단위 : %)

사업체 유형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민간회사	67.6	76.1	39	44.1	64.7	76.8	55.4	60.6
외국계 회사	5.1	1.8	3.1	1.2	3.2	3.0	0.8	1.3
정부출연기관공사	4.5	3.9	17.9	6.0	3.5	3.0	15.1	6.6
법인단체	5.0	6.0	4.0	3.8	4.6	4.5	5.1	7.7
정부기관	5.3	3.4	25.5	13.3	4.9	6.2	14.2	8.3
교육기관	11.6	7.4	6.7	28.2	17.6	5.3	8.6	13.8
연구기관	0.6	0.9	3.5	2.8	1.2	0.8	0.4	1.3
기타	0	0.2	0	0.3	0	0	0	0

자료 : 대졸자이동경로조사(2017년도)

〈부표 3〉 유형별 산업분포 현황

(단위 : %)

산업분포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유형 7	유형 8
제조업	16.9	17.8	26.9	18.4	17.9	17.7	29.8	18.9
광업 및 건설	2.4	3.0	3.5	4.4	2.1	4.3	2.6	4.1
전기운수통신	3.1	3.7	7.6	4.4	3.1	3.9	7.7	3.5
도소매업	8.7	9.5	2.2	3.1	7.2	6.2	5.6	8.5
숙박음식점업	2.4	4.5	0.9	1.9	1.5	2.1	2.1	3.4
금융보험업	6.4	2.5	4.0	1.2	5.7	2.9	5.6	4.7
전문과학	12.4	11.6	7.1	6.6	12.7	16.0	6.9	8.7
교육서비스업	17.4	12.7	10.7	31.1	22.7	7.7	11.2	19.7
공공사회보장	4.7	3.3	24.2	12	4.2	6.0	15.5	7.8
보건사회복지	5.2	11.1	2.2	7.6	3.8	8.3	2.6	9.6
출판영상방송	12.1	11.5	1.7	3.4	12.5	15.9	4.3	3.7
기타서비스업	7.8	8.2	8.5	5.4	6.1	8.4	5.6	6.6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대졸자이동경로조사(2017년도)

abstract

Inter-Regional Migration and Wage Effects by College Graduates

Donghun Cho

This study empirically estimates the possible association between the college graduate Young Peoples' wages in the labor market and their internal migration through college education after high school education. Using the Graduate Occupation Mobility Survey(GOMS), we found out that the more likely young peoples find jobs in the location from different their hometown the higher they command wages in the labor market.

Keywords : inter-regional migration, wage changes, youth labor market